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네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 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흐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스느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흥가마는  
 었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생각흐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흐며 사름이라 허물흐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생각 마오 띠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튼 얼굴이 편흐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흐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느고  
 죽조반(粥早飯) 초석(朝夕) 피 네와 ㄱ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었디 자시느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므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말거니 눅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둑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ㄱ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샴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흐더이고  
 모침(茅檐) 촌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青燈)은 놀 위흐야 불갓느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꾀음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흐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ㄱ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습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습인들 어이흐며  
 정(情)을 못다 흐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었디 씨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지님 돌이야크니와 구즌비나 되소서

-정철, 「속미인곡」-

(나)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 원새끼를 눈 길게 너스너스 꼬아  
 그 구멍에 그 새끼줄 넣고 두 놈이 두 끝 마주 잡아 이리로 홀근  
 저리로 홀적 홀근홀적 할 적에는 ㉠나나 남이나 다 그는 아무썬  
 견디려니와

㉡아마도 임 여의고 살라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다)

한산(寒山) 어른 송계신보(宋季愼甫)가 나오는 사춘이 된다. 내가  
 일찍이 그 집에 가보니, 뒤로는 감악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큰 돌을  
 임하여 초막집을 한 채 엮어 한가히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었다. 그  
 당명(堂名)이 무어나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취한(就閑)’이라 이름하려고 하는데, 미처 써 붙이지 못했  
 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한(閑)은 본디 이 당(堂)이 소유한 것이거니와, 우리 형은 나이  
 70세가 넘어 하얀 수염에 붉은 얼굴로 여기에서 즐기며 바깥 세상  
 에 바랄 것이 없으니,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운취  
 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건대, 당 한편에 애완(愛玩)하여  
 심어놓은 것들이 있으니, 바로 대(竹)와 국화(菊)와 진송(秦松)과  
 노송(魯松)과 동백(冬柏)이요, 게다가 빙 둘러 사방의 산에는 또 창  
 송(蒼松)이 만여 그루나 있으니,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세한(歲寒)의  
 절개가 있어 더위와 추위에도 지조를 변치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형께서는 늙을수록 건장하여 신기(神氣)가 쇠하지 않았는데도, 사  
 방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이곳에 은거하여,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춤추고 여기에서 마시고 취하고 자고 먹고 하니, 이 여섯  
 가지를 알아서 벗으로 삼는다면 그 취미나 기상이 또한 서로 가깝  
 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께서는 또 세상 변천과 세상 물정을 많이 겪고 보았습니  
 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교우(交友) 관계가 처음에는 견고  
 했다가 나중에는 틈이 생기어, 득세한 자에게는 열렬히 따르고 실  
 세한 자에게는 그지없이 냉담하며, 땡땡거리는 자리에는 서로 나가  
 고 적막한 자리에는 서로 기피하는 것이 세태의 풍조입니다. 그런  
 데 이 여섯 가지는 이런 가운데 생장하면서도 능히 풍상(風霜)을  
 겪고 우로(雨露)를 머금어 이제까지 울울창창하여서 앓고 눕고 기  
 거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인과 함  
 께하고 있으니, 차라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 세상의 걱정  
 을 피해서 자신의 천진(天真)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  
 까. 이 당에는 실로 이 여섯 가지가 있고 옹(翁)께서 그 가운데에  
 처하시니, 어찌 ‘육우(六友)’라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한(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인하여 나에게 그 기문  
 (記問)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윤휴, 「육우당기」-

22. (가)~(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상적 통념을 반전시켜,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색채어를 사용해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의지를 부각한다.
- ④ (나)는 (다)와 달리 관찰한 내용에 대하여 서술한다.
- ⑤ (가)는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시상이 전개된다.

23. <학습 활동>에 따라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선생님: 정철은 「속미인곡」을 통하여 자신이 당대 군주였던 선조에게 지닌 충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속미인곡」에서는 두 여인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하소연을 하면서 동시에 정철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이를 ㉠, 하소연을 들어주는 이를 ㉡라 할 때, 윗글의 ㉠, ㉡에 초점을 맞추어, 「속미인곡」을 감상해 보세요.

- ① ㉡가 궁궐에서 쫓겨난 ㉠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에게 질문을 건네자, ㉠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속미인곡」은 두 여인의 화자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② ㉠는 자신이 임의 충애를 받음직함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는 ㉠가 과거의 임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 자신의 이별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는 임과 자기 자신의 이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조물주의 시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는 ㉠의 좌절감으로 이어지며, 이를 들은 ㉡는 ㉠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④ ㉠는 임과 이별하였으나, 임에 대한 소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임에 대한 소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의 외로운 처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의 말을 통하여, ㉠가 임에 대하여 근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이를 작가의 처지를 고려하여 감상한다면, ㉠가 신하된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4.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름'과 '안개'는 임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드러내고, (나)의 '구멍'은 화자가 지닌 공허감을 드러낸다.
- ② (가)의 '옥(玉) 7톤 얼굴'은 화자의 얼굴을 드러내고, (나)의 '두 놈'은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를 드러낸다.
- ③ (가)의 '꽃잠'은 화자가 함께 있고 싶은 존재와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나)의 '가슴'은 임과 헤어진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
- ④ (가)의 '계성(鷄聲)'은 화자가 임에 대하여 투영한 염원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고, (나)의 '구멍'은 육체적 고통을 드러낸다.
- ⑤ (가)의 '그림자'는 화자의 처지를 위로해주는 존재이고, (나)의 '홀근홀적'은 가슴을 새끼줄로 꿰는 모습을 드러낸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멀리 떨어져 있는 임과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지려는 화자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세상 이치에 밝지 않아, 세상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꿈에서 임을 만난 화자의 걱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육체적 고통은 누구나 감내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사랑하는 이를 잃음으로 인한 비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26. (다)의 '나'가 가진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대', '국화', '진송', '노송', '동백', '창송'의 여섯 가지가 '송계신보'의 집 주위에 놓여 있으며 이들이 모여 '세한의 절개'라는 의미를 이룬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육우'라 칭하려 한다.
- ② '나'는 '교우 관계'는 겉으로는 견고하나 세태를 관망해볼 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데서, '육우'는 '풍상'과 '우로'를 겪은 후 무너지는 데서 이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찾는다.
- ③ '나'는 '육우'와 '교우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육우'는 항상 지조를 변치 않으며 주인과 함께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우 관계'는 '천진'을 지키기 어려운 데서, '육우'의 가치가 높다고 본다.
- ④ '나'는 '취한'으로 당명을 정하려는 '송계신보'에게 '한'은 본디 '송계신보'의 집이 가진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송계신보'에게 '취한'보다는 '당명'을 '육우당'으로 지으라고 추천한다.
- ⑤ '나'는 '송계신보'가 나이가 들어 '신기'가 쇠해져 사방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송계신보'의 집 주위에 있는 '육우'를 벗으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드러나고, 군신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임금을 임으로, 신하인 작가 자신을 여성 화자로 내세워 자신이 임금에게 가진 충심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나)는 일상 속의 사물을 활용하여 임을 잃는 것만은 다른 고통보다도 참을 수 없다고 표현하여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권력의 성쇠에 따라 변하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당명을 통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은 임금의 신하를 표상하는 화자가 임금을 표상하는 임과 함께한 궁궐로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② (가)의 '모침(茅檐) 촌 자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고, (다)의 '육우'는 '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③ (나)의 '새끼줄'은 세상의 역경을 표상하며,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이 열렬함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다)의 '육우'는 '천진(天真)'을 지키는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④ (가)의 '낙월(落月)'은 화자가 임에 대하여 가진 일편단심을 나타내며, 화자가 임에 대하여 가진 적극적 구애를 드러내는 소재이고, (나)의 '새끼줄'은 화자와 임의 모습을 통하여,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 ⑤ (가)의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뽕 비'와 함께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고, (다)의 '한(閑)'은 '나'가 생각하기에 '육우(六友)'가 이미 가진 속성으로, 이를 통하여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근심없는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군.